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어떤 언어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닫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영어

후원하기

이집트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주권 또는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이 지도의 국경은 유엔지리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기](#)

이집트 2024

당국은 2024년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억압하며 거리 시위를 제한했다. 당국은 계획된 반정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으며, 산발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평화 시위도 강제로 해산했다. 정치적 사유로 구금된 수감자 934명을 석방했으나 1,594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체포 대상에는 언론인, 변호사, 시위 참가자, 반정부 인사, 야당 정치인을 비롯하여 정부의 인권 실태 및 경제 위기 대응을 비판한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수십 명이 강제 실종되었으며,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처우도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고, 실제 집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 관행이 계속되었다.

여성과 소녀, 종교적 소수자, 성소수자(LGBTI)는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차별, 폭력,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사회보장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거나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비인가 거주지에서는 강제 퇴거가 이어졌고, 대부분 수단(Sudan) 출신인 수천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정부는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했다.

배경

4월,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 후보들의 출마가 배제된 선거에서 승리한 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23년 9월 중단되었던 정부와 야권 간의 대화는 2024년 2월 재개되었으나, 비판 세력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권고된 정치 및 인권 개혁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집트의 경제·금융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아랍에미리트(UAE)는 약 570억 미국 달러(USD) 규모의 투자, 대출, 재정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 3월, 유럽연합은 이집트에 인권 관련 조건을 달지 않고 74억 유로(80억 미국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 미국도 9월에 인권 관련 요건을 면제한 채 13억 미국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다. 2024년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24.9%를 기록하며 생계비 위기가 지속되었다.

가자(Gaza)지구와 연결된 라파(Rafah) 국경 검문소는 이스라엘군이 국경의 팔레스타인 측 지역을 장악하고 교전 중 이집트 병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5월 이후 계속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집트 당국은 비판적 의견 표현과 평화적 집회를 계속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며, 언론인, 변호사, 시위 참가자, 반정부 인사, 야당 정치인, 그리고 정부의 인권 실태와 경제 위기 대응을 비판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다.

1월과 3월 사이, 보안군은 소셜 미디어에서 물가 인상에 불만을 표한 사람들 중 최소 4명을 자의적으로 체포했다.¹

7월 31일, 당국은 대통령과 군을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야당 정치인 예히아 후세인 압델하디(Yehia Hussein Abdelhady)를 자의적으로 체포했다.² 그는 2024년 말에도 여전히 테러리즘과 허위 뉴스 유포라는 조작된 혐의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상태였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적대 행위가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를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 온 여성인권활동가이자 언론인인 라샤 아자브(Rasha Azab)는 반복적인 위협과 박해를 받았다. 아자브는 신원 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수차례 미행을 당했으며, 제3자를 통해 국가안보국이 그녀를 체포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받기도 했다.

최소 14명의 언론 종사자가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정부의 국유 자산 매각 계획을 비판하는 만화를 게시한 후 7월에 체포된 아슈라프 오마르(Ashraf Omar)와 뉴스 웹사이트 아라빅 포스트(Arabic Post)의 언론인 칼레드 맘두(Khaled Mamdouh)가 포함되었다. 두 사람 모두 테러리즘과 허위 뉴스 유포라는 날조된 혐의로 자의적으로 연말까지 구금된 상태였다.

독립 인권단체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협회(Association for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에 따르면, 당국은 최소 562개의 인권, 뉴스 및 기타 웹사이트를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

당국은 계획된 반정부 시위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체포를 단행했고, 그럼에도 발생한 일부의 소규모 평화적 시위는 강제로 해산했다. 3월, 안보군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소규모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엘시시 대통령이 빈곤층을 굶주리게 한다는 팻말을 든 시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했다.

7월, 당국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시위와 엘시시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남성 수십 명과 최소 7명의 여성, 그리고 1명의 아동을 자의적으로 체포했다. 또한 평화적 시위, 온라인 댓글 게시, 팻말 게시, 벽면 구호 작성 등을 통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 수십 명에 대해서도 구금 조치가 계속되었다.

3월 20일, 13년간의 수사 끝에 당국은 비정부기구(NGO) 직원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출국 금지를 수반했던, 이른바 해외 자금 지원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173/2011 사건의 종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호다 압델와합(Hoda Abdelwahab)에 대한 출국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자의적 구금과 불공정한 재판

1월과 10월 사이, 당국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최소 934명을 석방했으며, 대부분은 미결구금의 법정 상한인 2년을 초과한 후 석방된 것이었다. 독립 비정부기구(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당국은 5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1,594명을 정치적 이유로 체포했다. 최고국가안보검찰청(Supreme State Security Prosecution, SSSP) 검사와 판사들은 구금자 수천 명의 구금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다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미결구금 명령을 관행적으로 연장했다.

2월, 법원은 정치인 아흐메드 알 탄타위(Ahmed Al Tantawy)와 그의 선거운동본부장, 그리고 그의 지지자 21명에게 그의 2023년 대통령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월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지되었고, 12월에 최고항소법원(Court of Cassation)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6월 26일, 비상국가안보형사법원(Emergency State Security Criminal Court)은 시위자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에게 반고문(anti-torture)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³ 하지만 그는 이미 2년 10개월을 미결구금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10월에 석방되었다.

8월, 의회는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s)」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 개정안은 장기 미결구금의 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며, 적절한 변론권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⁴

9월, 저명한 활동가 알라 압델 파타(Alaa Abdel Fattah)는 부당하게 선고받은 5년형의 형기를 마쳤으나 당국은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⁵

12월, 군사법원은 북시나이 주(North Sinai) 주민 62명에게 군용 차량 파손 및 공무원 폭행 혐의로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은 2023년 10월 셰이크 주와이드(Sheikh Zuwayed) 시 주민들의 시위가 군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진행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 당한 뒤 자신들의 주거지로 귀환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12월 24일, 엘시시 대통령은 이 중 54명에 대해 대통령 사면을 단행했다.

강제 실종과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처우

이집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등 보안군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수십 명을 수일에서 수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 실종시켰다.

교도소, 경찰서, 국가안보국(NSA) 운영 시설에서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처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었다. 2월, 국가안보국(NSA) 요원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을 8일간 강제 실종된 상태에서 구타하고 전기충격을 가했다.

당국은 의도적인 의료 서비스 차단과 장기 독방 수감 등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의 절대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환경에 수감자들을 방치했다. 바드르 1 교도소(Badr 1 prison)와 제10 라마단 교도소(10th of Ramadan prison)에서는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6월 초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수감 환경, 미흡한 의료 지원, 운동 시간 축소, 가족 면회 제한 등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교도소 당국은 단식에 참여한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단식을 중단시켰다.

사형 제도

테러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형사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했다.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반하여 마약 밀매와 강간과 같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했으며,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불처벌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2024년에 발생한 불법 살해, 고문, 강제 실종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 관행이 만연했다. 2013년 8월 14일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Mohamed Morsi)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좌 농성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900명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의 가해자들도 처벌되지 않았다.

신체적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처우, 의료 서비스 거부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 가운데, 당국은 구금 중 사망한 최소 43명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 바드르 3 교도소(Badr 3 prison)에서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약물을 받지 못하는 등 수년간의 방치 끝에 1월 1일 사망한 이브라힘 알 아제리(Ibrahim al-Ajeery)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들, 특히 최고국가안보검찰청(SSSP) 검사들은 경찰 고문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를 기각하거나 묵살했다. 국제앰네스티(AI)가 파악한 드문 사례에서, 일반 검사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시위자의 고소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나, 연말까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5월 23일,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체포된 여성 중 일부는 신체 수색 중 성폭행과 구금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검찰총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최고국가안보검찰청(SSSP)으로 회부했으나, 최고국가안보검찰청(SSSP)은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경제적·사회적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권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경제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3%를 보건에, 6%를 교육에 배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연료 가격의 반복적인 인상은 식료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6월, 당국은 정부 보조금이 적용되는 빵의 가격을 4배 인상했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에 물가상승률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했으며, 사회보장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불과했다.

9월,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일일 단전 조치의 종료를 발표했다.

6월, 엘시시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준했다. 이 법은 특히 건강보험이 없거나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저해했다.⁶

노동권

2월, 엘시시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4,000 이집트 파운드(EGP)(약 82.50 미국 달러)에서 6,000 이집트 파운드(약 125 미국 달러)로 인상했다. 4월, 정부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6,000 이집트 파운드로 인상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월, 국가안보국(NSA) 요원들은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 노동자 수십 명을 심문한 끝에, 공공부문 기업인 가즐 알 마할라(Ghazl al-Mahalla) 소속 노동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테러 단체 가입과 허위 뉴스 유포 혐의에 관한 최고국가안보검찰청(SSSP)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던 5월에 잠정 석방되었다.

8월 17일, 또 다른 공공부문 기업인 ‘사마누드 제직 및 방직(Samanoud Weaving and Textile)’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조직했다. 8월 25일, 당국은 남성 5명과 여성 4명을 체포하고 고의적인 생산 수단 방해 선동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했다. 독립 비정부기구(NGO)인 이집트 개인권리 이니셔티브(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EIPR)에 따르면, 이들은 2주 이내에 모두 석방되었다.

9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지속적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간제 계약으로 교사 5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국가행정법원(State Council)은 임신 중이나 과체중 등 차별적 사유로 공립학교 임용에서 배제된 교사들을 대신해 이집트 개인권리 이니셔티브 (EIPR)가 제기한 항소 심리를 개시했다.

주거권

2월, 당국은 포트사이드(Port Said)의 엘-가밀 지구(EI-Gameel neighbourhood)에서 주민과 사전 협의하거나 보상을 제안하지 않은 채 강제 퇴거와 주택 철거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는 약 2,50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역 개발 계획을 근거로 철거를 정당화했다. 철거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사망했으나, 당국은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7월,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및 현지 투자자들과 함께 와라크 나일섬(Warraaq Nile Island)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9월 26일, 경찰은 경찰의 학대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조직한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포했다. 독립 언론 매체인 마다 마스르(Mada Masr)에 따르면 최소 7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10월, 섬의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안보군은 섬을 봉쇄하여 주민들이 주택 신축 및 증축을 위한 건축 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2021년부터 섬의 유일한 보건 시설을 폐쇄하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했다.

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는 이집트 지중해 연안 마을인 라스 알-헤크마(Ras al-Hekma)의 토지 약 16,430헥타르를 개발하기 위한 35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차단했다. 3월 10일, 당국은 라스 알-헤크마의 상황을 취재하던 마다 마스르 소속 언론인 라나 맘두(Rana Mamdouh)를 체포했다. 그녀는 주민들이 테러 행위를 하도록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고국가안보검찰청(SSSP)의 심문을 받은 후,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4월, 소셜미디어에는 주민들의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던 보안군과 주민들이 충돌하는 영상이 유포되었다. 12월 16일, 무스타파 마드불리(Moustafa Madbouly) 총리는 정부가 퇴거 대상 주민들에게 55억 이집트 파운드(약 1억 815만 4천 미국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피해 주민 전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차별

여성

여성은 혼인, 이혼, 자녀 양육권, 공직 진출 등에 있어 법적인 차별과 관행적인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되던 「신분법(Personal Status Law)」 개정 절차는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의 의미 있는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답보 상태에 빠졌다.

10월, 여권·이민·국적총국(General Authority for Passports, Immigration and Nationality)은 하층 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차별적 지침을 발표했다. 이집트 개인권리 이니셔티브(EIPR)에 따르면, 내무부가 여행사에 보낸 공문에는 하층 계급 여성에 전업주부, 미취업 여성, 저숙련 직종 종사자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최소 4명의 여성이 틱톡에 콘텐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도덕 위반 혐의로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성소수자

당국은 실제 또는 추정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기소했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집트는 2023년 6월 발표한 제2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전력의 42%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가스 탐사권을 지속적으로 발급하여, 이러한 탈탄소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안보 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2016년 법률에 따라, 교회를 건축하거나 보수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10월, 정부 대변인은 법 제정 이후 제출된 5,540건의 신청 중 3,453건의 교회 합법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4월, 보안군은 알미냐(al-Minya) 주의 두 마을에서 발생한 종파 공격으로부터 콥트 기독교도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 공격은 해당 마을에 기독교 예배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발생했으며, 무슬림 주민들이 행진하며 반기독교 구호를 외치고 콥트 기독교도의 주택을 파손했다.

이집트 개인권리 이니셔티브(EIPR)에 따르면, 7월 군사법원은 무슬림 남성에게 보낸 전자 메시지를 이슬람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여 콥트 기독교도 징집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이집트 보안군은 비정규 경로로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수천 명의 수단 난민을 대규모로 체포했다. 안보군은 난민들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에 억류했다가,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한 채 수단으로 강제 송환했다(수단 항목 참조). 당국은 또한 에리트레아(Eritrea) 등 타국 출신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도 체류 신분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체포했다.

9월, 정부는 모든 외국인이 이집트인 보증인을 세우고, 1,000 미국 달러를 납부하여 체류 신분을 합법화해야 하는 기한을 1년 연장했다.

12월 16일,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최초의 난민법을 비준했으나, 이 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위한 안전장치도 미비했으며,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자의적 구금을 허용했다.

- 1. [“Egypt: Halt crackdown on people voicing concerns over economic crisis”, 13 May](#) 
- 2. [“Egypt: Politician detained over social media posts: Yehia Hussein Abdelhady”, 9 August](#) 
- 3. [“Egypt: Three-year prison sentence for anti-torture protester a ‘travesty of justice’”, 27 June](#) 
- 4. [“Egypt: Reject draft Criminal Procedure Code”, 2 October](#) 
- 5. [“Egypt: Ensure Alaa Abdel Fattah is not detained after completing length of unjust prison term”, 26 September](#) 
- 6. [“Egypt: New law threatens to reduce access to healthcare for millions”, 30 July](#)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2024/25 받기

프랑스어

다운로드

소개	자료
문의하기	미디어 센터
운영	인권 교육
현대 노예제 방지법 성명	인권 과정
재정	연례 보고서 아카이브

참여하기

가입

행동하기

자원봉사

최신 소식

뉴스

캠페인

연구

함께 일하기

인권에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국제앰네스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채용 및 인턴십

팔로우하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접근성

쿠키 정책

이용 허가

기부금 환불

© 2025 국제앰네스티